

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방한단 파견사업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일본 전국에서 선발된 교육관계자를 파견하여 교육현장을 비롯한 각종 시찰, 관련강의 청강, 관계자와의 간담 등을 통해 앞으로 일한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증진의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일본의 교육 관계자 49 명

【방문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파주시 49 명

【일정】

■ 사전학습 (온라인) :

7 월 20 일 (토) 방한 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설명)

【교류】 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 방일단 참가자와의 온라인 의견교환회

■ 파견 (오프라인) :

8 월 18 일 (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8 월 19 일 (월) 환영식

【강의】 '한국의 교육 제도와 현황', 【시찰】 한국민속촌, 롯데타워 전망대

8 월 20 일 (화) 【시찰】 오두산 통일전망대,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창경궁, 국회의사당, 국회박물관

8 월 21 일 (수) 【강의】 '한국의 문화와 일본의 문화', 【학교방문】 한양대학교, 【시찰】 리움미술관

8 월 22 일 (목) 【학교방문·교류】 서울길원초등학교 (모의수업, 급식체험 포함)

【문화체험】 남산한옥마을 한지 청사초롱 만들기 체험, 【시찰】 인사동

8 월 23 일 (금) 【학교방문·교류】 배화여자고등학교 (모의수업, 학생식당체험 포함), 성과보교회

8 월 24 일 (토) 인천국제공항 출국

2. 프로그램 기록사진

<p>2024년 8월 19일 【강의】 '한국의 교육 제도와 현황'</p>	<p>2024년 8월 20일 【시찰】 오두산 통일전망대</p>

	
<p>2024년 8월 20일 【시찰】 국회의사당</p>	<p>2024년 8월 21일 【강의】 '한국의 문화와 일본의 문화'</p>
	
<p>2024년 8월 21일 【학교방문】 한양대학교 (분 임 토의 "내가 생각하는 한일양국의 문화 차이")</p>	<p>2024년 8월 22일 【학교방문·교류】 서울길원초등학교 (모의수업, 급식체험 포함)</p>
	
<p>2024년 8월 22일 【문화체험】 남산한옥마을 한지 청사초롱 만들기 체험</p>	<p>2024년 8월 23일 【학교방문·교류】 배화여자고 등학교 (모의수업, 학생식당체험 포함)</p>

3. 참가자 소감 (발췌)

◆ 일본 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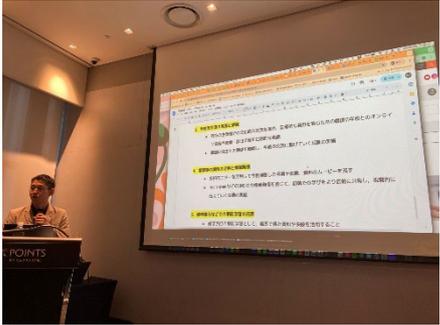
일본 교원에 의한 모의수업 중에 실제로 한국 학생과 교원간에 대화가 성립하고, 배움의 자세를 볼 수 있었던 것이 좋습니다. 철석의 단사쿠(短冊) 이야기를 하던 중에 학생이 '소원'에 대해 여러 생각 끝에 자신의 말을 찾아 표현했습니다. 그 학생의 저자성을 끌어낸 것은, 일본 교원이자 모의수업이자 그 학생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일본 선생님이 오신다!"라는 컨텐츠가 아니라, 거기에 배움이 성립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 일본 교원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는 한국과 북한의 가깝고도 먼 관계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p>초등학교 5 학년 수업을 참관. 일본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모의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에 놀랐습니다. 초등학생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를 즐기면서 공부했습니다.</p>	<p>(전략) 일본도 한국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초등학교 무렵부터 평화를 위해 국제적인 접근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p>
<p>2024教員訪韓団に参加しました。様々な研修や体験を通して、韓国のことを深く知ることができました。特に小学校・高校に行き、授業参観をしたり、韓国の教員と交流したりするなかで、日韓の教育の考えの違いを感じることができました。ICT機器などの学校設備がとても整っていて、教育に力を入れていることが伝わってきました。海外に出ると、日本の教育についてもよく見えてきました。また、同じような海外研修プログラムがあれば、積極的に参加したいです！</p> 	
<p>2024년 8월 24일 (Facebook) (전략)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거나 한국 교원과 교류하는 가운데, 일한 교육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 나오니 일본 교육에 대해서도 더욱 잘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p>	<p>2024년 9월 10일 (통일일보 디지털) “다채로운 참가형 이벤트 일한문화교류기금이 개최” 본 기금이 올해 여름 실시한 참가형 청소년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교원들이 방한한 것에 대해 언급하고 한국 학생과 교류한 것에 대해 소개.</p>

6. 보고회에서의 방일 성과 및 귀국 후 액션플랜 발표

	
<p>【성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과 한국의 교육과 문화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고, 국제이해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 초등학교에서는 교원 이외의 직원들이 많은 점과 고령 봉사자와의 관계 등이 인상적이었고, ‘지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의식이 높다고 느꼈습니다. • 한국 학교에서는 자유로운 학습 환경이 마련 	<p>【성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방문시 학생이 일본어로 인사해 주는 모습에서 상대국에 대한 다가감과 개인과 개인의 우호적인 관계성을 느꼈습니다. • 해외를 방문하고 내 자신이 일본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문화이해와 함께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p>되어 있고 자주성과 창조성이 육성되고 있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대학 입시와 취직 경쟁이 매우 격렬하여, 교육의 자유로움과 사회의 어려움이 공존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p> <p>【액션플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한으로 얻은 경험과 식견을 교내 교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 일한 학생들간의 문화적인 교류를 심화하고 국제적인 시야를 기르기 위해 한국 학교와의 온라인교류와 방일·방한교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교내 모니터를 활용하여 이번에 촬영한 사진, 영상과 자료동영상을 방영함과 동시에, SNS로의 정보발신을 통해 방한에서의 배움을 보다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시각적으로 전달해 나가는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방문 시의 모의수업을 통해 일본도 한국도 학생의 반응과 의견의 본질은 동일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공존가능성을 느꼈습니다. <p>【액션플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한 양국의 교원간의 관계를 유지하여 학생간의 교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 한국 교원과 함께 공동수업연구 등을 통해 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 본 사업을 주변에 알림으로써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기분을 순환시켜, 일한교류로 이어나가겠습니다.
--	--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